현대차, 서울-평창 190km 고속도로 자율주행 성공

앞차 느리면 추월…톨게이트도 가뿐히 통과

차량내 시스템이 자동통제…완전 자율주행
터널 요금소 나들목 분기점도 무난히 운전
국내 최장·최고속도로 시연…상용화 눈앞



현대자동차가 지난 2일 차세대 수소전기차, 제네시스 G80 기반 자율주행차로 서울-평창간 고속도로 약 190km 구간에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넥쏘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카메라로 창문 밖 풍경을 찍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와 제네시스 G80 기반 자율주행차로 서울-평창간 고속도로 약 190km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자율주행차 시연은 궁극의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 세계 최초의 사례다. 현대차는 9일부터 시작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파트너로 올림픽 성공 개최에 동참하고 전 세계에 평창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 고속도로서 완벽한 4단계 자율주행 기술 선보여

이날 시연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기반의 자율주행차 3대와 제네시스 G80 자율주행차 2대로 진행했다.

4단계(Level4 High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있고 운전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조건을 세팅한 뒤 실제 차량 운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차량 내 시스템이 정해진 조건 내 모든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한다. 완전 무인자동차를 의미하는 5단계 자율주행(운전자는 물론 운전대, 가·감속 페달 자체가 필요 없으며 탑승자만 있는 상태)과 함께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분류된다.

이날 시연은 스티어링휠(운전대)에 있는 자율주행 모드가 시작되는 버튼인 'CRUISE' 및 'SET'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차는 즉시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돼 스스로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출발해 신갈JC를 거쳐 영동고속도를 질주한 뒤 대관령IC를 빠져 나와 최종 목적지인 대관령TG에 도착할 때까지 5대의 자율주행 차량은 190km에 이르는 장거리 코스에서 법정 최고 속도(100~110km/h)를 유지하며 자유주행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고속도로의 자연스러운 교통흐름과 연계한 차선 유지 및 변경, 전방 차량 추월, 7개 터널, TG(Toll Gate: 요금소) 2곳, IC(Inter Change: 나들목) 1곳, JC(Junction: 분기점) 1곳 통과 기능 등을 선보였다.

앞차의 주행 속도가 너무 느릴 때는 추월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앞질러 갔으며, IC와 JC를 이용하기 위한 차선 변경도 스스로 했다. 도로 폭이 좁아지는 톨케이트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고속도로는 도심 못지않게 교통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및 공사구간과 같은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에서 수십만 km에 달하는 시험 주행을 진행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자율주행차 성능 개선을 진행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안에서의 4단계 수준 도심형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5단계 완전 자율주행기술은 오는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자율주행 수소전기차를 누구나 경험해볼 수 있도록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시내(왕복 7km 구간)에서 체험 차량으로 운영한다. 현장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더 치열해진다

2018시즌 규정 발표…팀간 경쟁 유도
상하위권팀 격차 줄여 관중 흥미 유발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2018 시즌을 맞아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올 시즌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최상위 레벨인 슈퍼 6000 클래스를 필두로 GT 클래스(GT1, GT2)와 신설된 BMW M 클래스, 현대 아반떼컵 마스터스 레이스가 함께 치러진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각 팀 감독들과의 회의를 통해 팀간 경쟁을 유도, 관중들의 흥미를 높이는데 규정 변경의 초점을 맞췄다. 슈퍼 6000 클래스의 예선을 3회(Q1~Q3)로 늘리고 녹아웃 방식을 재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시 활용했던 방식으로 3차례의 예선 성적이 합산돼 챔피언십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선 매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선과 결승을 치르는 동안 활용 가능한 타이어 수량도 4본으로 제한해 드라이버의 성향과 타이어 성능을 고려한 전략적인 운영도 중요해졌다.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를 좁혀줄 공식 연습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시즌 종합순위 12위 이내, 각 라운드 종료 후 종합순위 12위 이내에 든 선수와 차량은 경기별 연습주행과 시즌 3회로 정해진 공식연습 일정 외에 별도로 연습주행을 할 수 없다.

핸디캡 웨이트 규정도 달라졌다. 1위 드라이버는 지난해(+70kg)보다 무거운 +8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4위 이하 중상위권 드라이버에 적용됐던 중량 차감 폭은 지난 시즌에 비해 줄어들었다.

GT1 클래스와 GT2 클래스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전륜구동과 후륜 구동의 다툼이었던 GT1 클래스는 핸디캡 웨이트 최대중량을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120kg으로 높이고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며 경쟁의 균형을 맞췄다. 엔진의 연료분사 방식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크게 영향 받았던 GT2 클래스도 공기 흡입량 조절로 차이를 좁혔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참가 팀 감독회의를 통해 새 시즌 규정을 변경하면서 여러 참가 팀들의 경쟁을 유도해 관중들의 흥미를 끌어올리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슈퍼 6000 클래스 출전 차량들이 결승 레이스를 펼치는 장면. 사진제공 | CJ슈퍼레이스

2018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오는 4월22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되는 1라운드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원성열 기자

착한 구매, 착한 나눔 실천해요

휠라 '우리가 함께 했'S 캠페인' 전개

휠라가 3월 말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우리가 함께 했'S 캠페인'을 연다.

고객의 착한 구매를 통해 착한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코트디럭스 100만 족 판매 돌파를 비롯해 브랜드에 보내준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기획했다.

'함께 했'S 컬렉션' 제품 누적판매 10건 당 전국 소년소녀가정 1세대에 휠라가 준비한 '신학기 세트'를 지원하는 일명 '영일레븐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다. 이 컬렉션은 포스 백팩, 링크 백팩, 휠라레이, 에프엑스 벨트랩 슈즈, 휠라 아웃핏 언더웨어 등 신학기 필수품으로 구성했다. 이중 하나의 제품만 구매해도 캠페인에 자동 참여되며 캠페인 배지, 참여인증서, 스티커 셋트가 담긴 '인증 기프트 패키지'를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리바트 새 모델, 송중기 발탁

현대리바트 새 모델로 배우 송중기가 발탁됐다. 회사 측은 "모범적이며 밝은 이미지를 갖춘 송중기와 상품 진정성을 중시하는 친환경 가구 기업 현대리바트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CF는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의 기업 소개 광고와 리바트 키친(주방가구) 등으로 구성했다. 현대리바트가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것은 2004년 이후 14년 만이며 현대백화점그룹 편입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는 올해 B2C 사업 외형 확장에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브랜드 라인업을 완성한 만큼 인지도 제고와 영업망 확장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정욱 기자



서예지, 싱그러운 봄의 여신

서예지가 싱그러운 봄의 여신으로 변신했다. 모델로 활약 중인 세정 올리비아로렌 봄 시즌 화보를 통해서다. 화보에서 서예지는 특유의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에 꽃무늬 프린트가 돋보이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로맨틱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룩을 완벽히 소화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세정

편집 | 신하늬 기자

